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1 모음, 2 자음+모음, 3 모음+자음, 4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꼳]'은 4, '잎[입]'은 3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꼰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4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활+살)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② '집일[짐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하늘에 뜬 태양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늘 푸르던 하늘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네가 읽는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ㄹ	-(으)ㄹ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Ø(영형태)', 'ㅣ'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 ㉠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Ø(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
  예) 활 쏘리(활 쏠 이+Ø) [활 쏠 이가], 새(새+Ø)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예) 쇠(쇼+ㅣ)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 ㉢
  예) 곶 됴코 [꽃 좋고], 나모 셋는 [나무 서 있는]

<보기 2>

ⓐ : **나리** 져므러 [날이 저물어]
ⓑ : **太子** 오ᄂᆞ다 드르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 : 내해 **ᄃᆞ리** 업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 : **아ᄃᆞ리** 孝道ᄒᆞ고 [아들이 효도하고]
ⓔ : **孔子ㅣ** 드르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약 을이 ㉠이라면 을은 동시에 ㉡일 수 없다.
②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③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④ ㉡은 을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⑤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논, 미러리스카메라 사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

내달 25일까지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

캐논은 가벼운 무게와 고성능을 겸비한 미러리스 카메라 2종 구매하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를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제품을 구매하고 정품등록한 고객 전원에게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이번 이벤트는 캐논의 엔트리급 미러리스 카메라 2종 EOS M50, EOS M100 모델로 구성된다. EOS M50은 소형 경량 디자인에 4K 고해상도 영상, 회전형 스위블 액정 등을 갖춰 유튜버나 브이로거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다.

EOS M100은 약 2420만 화소의 APS-C 타입 센서에 약 266g의 가벼운 무게, 직관적인 터치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특히, 블랙, 화이트, 핑크의 총 3가지 바디 컬러에 7가지 페이스 커버, 여성 데일리백 브랜드 콰니와 콜라보레이션한 'EOS M100 핑크×콰니 데님 에디션'을 선보이는 등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손색 없다.

캐논이 가벼운 무게와 고성능을 겸비한 미러리스 카메라 2종 구매하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를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캐논

EOS M50 제품을 구매하면 정품 배터리 LP-E12,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5만원),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 중 한 가지를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EOS M100을 구매한 고객은 정품 배터리 LP-E12,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3만원), 프리미엄 레더 바디 자켓 중 한 가지가 사은품으로 증정되며, EOS M100 핑크 X 콰니 데님 에디션 구매 시 EF-M 15-45㎜ F3.5-6.3 IS STM 렌즈, 콰니 데님 클러치, 콰니 아일렛 타이드 스트랩이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 답	배 점	문 제	정 답	배 점
13	❹	2	16	❷	2
14	❸	2	17	❷	2
15	❶	2			